관촌면 행복보장협, 밑반찬 꾸러미 나눔 활동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명진, 조래춘)가 지난 25일 무더운 여름철에 반찬 조리 등 식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 1인 청장년 등 20여 가구를 선정하여 4종류의 장아찌로 구성된 여름철 밑반찬을 지원했다.

여름철 밑반찬 꾸러미 지원사업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어르신과 장애인, 청장년 가구에 반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고독사 방지 및 건강 체크를 통한 안정된 일상생활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조래춘 민간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반찬 나눔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를 확대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첫 승진 임용 단행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25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시의회는 박경희 전문위원을 5급으로 6급에 서효열 주무관과 7급에 김현아 주무관이 각각 승진 임용되었다.

이번 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 중에서 직무성과, 경력, 업무추진능력, 조직의 화합에 기여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뤄졌다.

고경윤 의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갖게 된 첫 승진 인사로서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의정 업무의 각 분야에서 열정과 추진력,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석대 전주캠퍼스, '콕! 찝어 학과-고교 전공체험'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는 26일 지역 고교생 400여 명을 초청, '콕! 찝어 학과-고교 전공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앞서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남천현 총장과 강석표 입학홍보처장, 전주캠퍼스 입학전담교수, 총학생회 임원진, 참여학과 교수 및 재학생, 지역 고교생 400여 명이 참석했다.

고교생 400여 명은 사전에 신청한 학과로 이동해 취업선배 멘토링과 전공체험 등을 가졌다.

이날 24개 학과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학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남천현 총장은 "지역 고교생들에게 적성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입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 산서면지사보협, 독거어르신 제철과일 전달

장수군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구선서, 권동주)가 26일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15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제철과일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제철과일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평소 잘 드시지 못하는 통닭과 과일을 지원해 여름철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 유지를 돕는 맞춤형 특화사업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 속에서 산서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아침부터 나와 직접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통닭과 과일을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작년에 이어 물품을 후원한 ㈜도성전력 김경배 대표도 직접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봉사를 몸소 실천했다.

통닭과 과일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로 외출이 쉽지 않고 물가도 많이 올라 선뜻 구매가 망설여졌는데 이렇게 지원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동주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무더위 등으로 지친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철과일과 통닭을 드시고 힘을 내 건강히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사랑의 삼계탕 나눔'

전북은행, 2022년 건강한 여름나기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6일 전주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2022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승용 도의원, 최주만 시의원,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석복 관장, (사)어울림 김종만 이사장,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중복을 맞아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하고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은행은 매년 여름철에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밀착형 실질적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은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삼계탕으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향토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수한방병원, 폭염 취약계층에 선풍기 200대 지원

전주수한방병원(원장 임선영)은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선풍기 200대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선풍기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수한방병원은 지난 2010년 개원 후 독거노인 및 암환자 위안잔치, 저소득학생 장학금 후원, 취약계층 건강기능식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선영 병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수한방병원의 도움으로 전주시민들의 여름이 시원해질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나눔 활동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군 꿈드래장애인협회, 소통과 화합 어울마당 개최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유태옥) 소통과 화합 어울마당이 26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후원으로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가 주관하였으며 회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유태옥 지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이번 행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만난 회원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라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다 같이 잘사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는 관내 등록 장애인 1,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8시~20시, 주말 9시~18시까지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송천2동 지사협, 독거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채봉덕)는 26일 중복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찹쌀, 대추, 수삼 등 음식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300인분의 닭을 직접 손질해 조리한 삼계탕을 거동불편 어르신들 가정에 전달했다.

채봉덕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정성 담긴 보양식을 드시고 기운을 잃지 않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2동 해바라기 봉사단, 영양 찰밥 나눔 전개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김혜숙)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이현옥)은 26일 중복을 맞아 효성경로당 어르신 50여 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영양 찰밥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10여 명은 정성껏 준비한 영양찰밥과 밑반찬, 과일 등을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현옥 회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방안전 표어 · 포스터 · 사진 공모

남원소방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해 국민과의 안전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모 주제는 화재 예방, 대응, 일반 안전 분야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공모전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https://fire.go.kr)에 참가신청서 및 작품 파일을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출품작은 9월 중 심사를 통해 9월 30일 당선작을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2022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오는 8월 말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의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 방법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작품은 소방안전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어, 포스터,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작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http://fire.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9월 중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상장 15점(표어 5, 포스터 5, 사진 5)과 총 1,14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청웅면, 온열질환 예방 건강교실 운영

청웅면이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양지어머니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4개소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일부인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발열, 구토,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이며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더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 치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심박수, 호흡수,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건강교실은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스티커로 압화꽃병 만들기를 통해 손의 유연성 및 근력 향상, 대뇌 활성화로 인한 치매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충의 청웅면장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를 잘 활용하고 건강교실을 통해 온열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